

## 104. 언제든지 너희들의 평화가 방해받으면 뱀이 근처에 있는거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어.

2015.08.03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받을 거야.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나를 가장 닮았어. 사랑을 제외한 모든 자질 중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평화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랑을 키울 수 없어. 평화가 없다면 사람들은 죽음과 절망의 소용돌이 안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들 중 하나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의 평화를 빼앗는것. 그래서 내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약속하였어. 언제든지 너희들의 평화가 흔들릴때마다 너희들의 근처에 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말장난 의도 없음) 그래.. 방울뱀.

너희들이 흔들릴때 너희들은 그 뱀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새싹을 잘라내지 않는한 적들은 너희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거야. 대부분의 경우 천천히 휘감아 뇌로 가는 순환을 차단하고 신중함으로 위장한 공포의 독을 주입해. 내가 영혼을 찾아갈때 너희들이 평화를 느끼는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 평화를 가져와. 나의 평화는 모든 이해와 사건들을 능가해. 비극의 한 가운데서도 나의 평화가 내려와 혼돈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어둠의 세력, 그들의 전체 의제는 투쟁, 혼란, 혼돈을 조장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고린도전서14장33절)

언제든지, 언제든지 너희들의 평화가 방해를 받거나 흔들릴때 너희들은 근처에서 균형을 무너뜨리고 독을 주입하고 있는 작은 악마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만약 나의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시작되어질때부터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힘으로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지만 힘은 항상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덴동산을 회복시켜줘서 그들이 평화롭고 선의와 이해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의 통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야.

내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것인지. 그 뱀이 영원히 추방될때까지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반대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작에는 평화가 지구 전체에 빛나는 힘이 될 거야. 심지어 동물들도 사람들과 평화를 가지게 될 거야.

이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피에 의해 어렵게 얻어질 것이며 그 성질상 마지막 심판까지 일시적일 뿐일 것이야. 그런 후 평화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닮았고, 그와 대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장 사탄을 닮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종교지도자들을 독사의 무리라고 불렀어.

그들은 (쿠션, 옷 등에 장식으로 다는) 황금 술로 짠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권위와 통치에 도전하는 누구든지 혹은 어떤 것이든지에 대해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는 굶주린 늑대였어. 절대권력은 타락하였고 그 절대권력은 그들이 노리는 것이었어. 만약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히 도전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으로 협박하였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종교권위자들은 진리의 메신저이자 수호자로 가장하여 여전히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웃간에 불화를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되지 말아라. 이것은 가장 확실하게 사악한 것들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깨끗하기를 원해. 너희들의 손에 진흙을 묻히지 말아라. 오히려 깨끗하고 빛나서 휴거되어 나의 영원한 거처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어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라. 잔인한 말을 들었을때 그곳에 없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라. 험담과 중상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들의 품에 평화를 가져오는 신부들의 발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온 모든 최고급 향수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오, 너희들이 정의를 수호하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평화를 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이 혼란에서 질서를 가져오고, 갈등에서 이해를 가져오고, 비통함을 용서와 친절로 바꿔놓을때 너희들은 가장 나를 닮았어. 돌아다니면서 이웃사랑과 화합을 가져오는 영혼은 가치를 메길 수 없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열매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미덕을 증언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뱀과 같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독이 어떻게 통치자들에게 전쟁과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 잠시 생각해보기를 바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25절에는 나발,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나는 악인의 열매와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나의 신부들에게 드러내고 있어.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실로 너희가 무고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악에 참여하기를 거부할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미덕으로 나를 빠져들게해. 너희들에게 남겨진 지구에서의 시간에 악마는 항상 너희들을 더럽히고, 너희들의 순수함, 무고함, 아름다움을 빼앗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웃이나 가족 사이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이야.

나의 아름다운 사람들아 경계하여라. 너희들의 미덕과 다른 사람들의 미덕을 비방과 험담으로부터 보호해라. 이 세상의 수렁에서 너희들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아무도 너희들의 결혼 예복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의 미덕으로 계속해서 나를 빠져들게 해라.

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얼굴을 붉히게 하지 않는 완전한 순수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 그 날이 얼마나 멋진지.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오직 나에게만 두어라. 타협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보호해라. 분쟁에서 평화를 가져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들의 미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해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질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데려갈 거야.